

헬기 12대·실탄 1만발·저격총까지... '제2의 5·18' 기획했나

● '12·3 비상계엄' 속속 드러나는 軍 무장 규모

병력 1천500여명... 권총·K1 기관단총·드론재밍전 무장
오월단체 "尹, 국민 상대 전쟁 준비 반인륜적 범죄" 비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총 1천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로 무장한 데다, 계엄군이 쟁전 실탄만 최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제2의 5·18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2·3·6면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 병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 수송용 45인승 대형버스 28대와 25인승 중형버스 15대를 비롯,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대 대원들을 태워 국외로 야간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수방사·방첩사·정보사 등 총 1천500여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특전사 대원이 1천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 임무를 맡았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2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체포 후 서울 관악구 인근 BI 지하 병거에 구금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에서선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 중 61명이 사병이었다.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을 동원했다. ▶ 2면에 계속

/주성학 기자·연합뉴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전남 5개 노회 박상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마치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파면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김건희 구속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김애리 기자

헌재 탄핵심판 서류 '세번 접수거절' 후 반송

대통령실·관저 전달 실패... 23일 브리핑서 '송달간주 여부' 발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송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18일 결재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관련 문서들을 전달하려 했지만 관저에 오전 10시14분께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는 오전 11시38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된 뒤 반송됐다. 우체국이 총 세 차례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현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가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배달에 실패했다. 이 공보관은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지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쟁점을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평의 안전과 내용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평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韓권한대행,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 관련기사 3·5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제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

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6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김진수 기자

총 1,500여명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1,139명	211명	200여명	30여명
707특임대 197명	군사경찰단 75명		
1공수여단 400명	1경비단 136명		
3공수여단 271명			
9공수여단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주요 임무: 국회,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봉쇄	국회 봉쇄	국회, 선관위 과천 청사 등 투입	선관위 전산실 위치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707특수임무단 단장, "실탄 1,920발 견거 출동" 1·3·9공수여단, 실탄 불출 규모 밝히지 않음	실탄 5,048발·공포탄 2,939발 불출, 테이저건, 드론재밍건 등	실탄 불출 규모 밝히지 않음	실탄 100발 불출

* 실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차량·헬기 등의 탄통에 통합 보관

연말뉴스 자료: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더불어민주당 허영·추미애 의원

헌정 2025년 4월 15일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시회(비서)사랑의 열매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용모금회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내외
- 교육기간** 2025년 3월 25일(화) ~ 2025년 12월 종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휴리데이 인 광주호텔
- 진행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5년 3월 14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 (예정)
